

2007 **희·망·도·약**



하얼빈 사범대 강승철 교수

중국 동북공정 막는 '고구려 역사 지킴이'



우리 사회는 10년을 고비로 중대한 변화를 경험했다. 1987년 민주화, 1997년 외환위기가 그것이다. 2007년, 우리는 다시 분수령에 섰다. 도약이나 후퇴이냐의 갈림길이다. 하지만 희망도, 좌절도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다. 새 희망을 향해 도약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자.

강 교수는 중국의 건국신화인 태양신화에 등장하는 '후예'와 고구려 시조인 주몽 신화를 비교 연구해 동북지역 등 현재의 중국 영토 안에서 활동했던 고구려 민족의 기원을 찾아냈다. 또 고구려가 전쟁이 아닌 융합정책을 통해 중국 내 다양한 부족을 흡수한 동맹제 연립국가였고 각 부족들의 신화와 토tem이 고구려 건국신화에 반영돼 있다는 것을 일

나있듯 현재의 중국 영토 내에 고구려의 역사가 분명 존재했다는 사실을 규명한 것이다.

강 교수의 학위논문은 중국 학계에 큰 반향을 몰고 왔다. 중국 고대문학 연구에 있어 국가급 저명교수로 인정받고 있는 푸우따오벤(傅道彬) 하얼빈사범대학 부총장은 "중국인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을 강 교수가 외국인의 시각으로 발견했다. 중국인의 입장에서도 참신하고 흥미롭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하얼빈사범대학은 특히 강 교수에게 한국국적 포기 조건으로 평생 고용 계약을 제시했다가 여의치않자 부교수 신분인데도 학장급 이상 처우인 월 기본급 3천위안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그를 임용했다.

한국으로 따지면 교육청 직할 출판사격인 하이퉁장 인민출판사도 강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을 책으로 발간하겠다고 제의해왔다. 강 교수의 책은 올 초 발간돼 중국 내 모든 서점에서 판매된다. 중국인들이 스스로 '동북공정'의 허상을 깨우치는 지침서가 될 전망이다.

강 교수는 앞으로도 한국인의 시각으로 한국과 중국의 고대 문화를 비교연구해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중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로서 언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적 실체를 널리 알리겠다는 각오다.

강 교수는 "한국이 동북공정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쳐, 학문적 실적을 가지고 중국 학계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중국 동북지역 내 우리 민족의 역사를 사실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하얼빈 =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서강정보대 출신...유학 중 교수 발탁 한·중 고대사 비교연구로 '왜곡' 밝혀

지 취득한데다, 학위논문을 통해 중국이 주창해 온 '동북공정'의 허상을 짚어냈기 때문. 그의 중국과 한국 고대문화 비교 연구는 중국 학계에서 처음 시도된 것으로 주목을 받았다.

중국 동북지역, 특히 고구려·발해 등 한반도와 관련된 역사를 부인하고 중국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 하지만, 양국의 고대문화에도 나

중국 유명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중국과 한국의 고대문화 비교연구를 통해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역사왜곡의 실체를 밝히는 광주 출신 한국인이 있다.

지린성(吉林省)·랴오닝성(遼寧省)·헤이룽장성(黑龍江省) 등 중국 동북 3성 지역 사범대학 중 가장 이름있는 하얼빈사범대학 외국어대학 한국어과 강승철(36) 교수.

그는 지난 1998년 광주 서강정보대학을 졸업한 뒤 지난 1993년부터 서강정보대와 자매결연 중인 하얼빈사범대학으로 유학가 외국 유학생으로는 처음으로 학사·석사·박사학위를 연달아 취득하고 교수에 임용돼 중국 학계를 놀라게 했다.



강승철 교수가 하얼빈사범대학 한국어과에 재학중인 중국 학생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치고 있다. 이들 학생은 한국의 대입수능시험과 같은 '가오카오(高考)'에서 베이징대학 입학 수준의 높은 점수를 받은 엘리트들이다.

화물선 전복 4명 실종

진도 해상에서 양식장 그물에 걸려

구암(舊巖) 30일 오전 11시경 진도군 지산면 자도 인근 해상에서 40t급 일반 화물선 '제1가거호'(선장 정항규·53)가 전복돼 있는 것을 순찰 중인 목포해경이 발견했다.

발견 당시 이 화물선은 진도 갈두리와 저도 사이의 양식장 그물에 걸려 있었으며, 승선한 것으로 알려진 선원 4명은 모두 보이지 않았다.

해경은 경비함정 11척과 구조헬기, 특공대 등을 급파해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을 벌이고 있다.

'제1가거호'는 구암 29일 밤 11시 40분께 목포항에서 소형 굴착기 1대

와 벽돌·시멘트·모래 등을 싣고 산안군 흑산면 만재도로 가던 중이었다.

해경 관계자는 "화물선이 갑자기 레이다에서 사라져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파도가 잠잠해지면 전복된 선체 내부로 특공대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실종자=▲정항규(53·선장) ▲오재영(55·성 미상·선원) ▲황인경(40·만재분교 리모델링 현장소장) ▲박철(31·목포 삼학기전 포크레인 기사)



진도 해상 양식장 그물에 걸려 전복된 화물선 '제1가거호'. <목포해경 제공>

경찰 '금융범죄 수사 검찰 수준 강화'

계좌추적 지원팀 신설

경찰이 전국 지방경찰청에 계좌추적 지원팀을 설치키로 하는 등 금융범죄와 지능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국 14개 지방경찰청 중 10여곳에 계좌추적 지원팀을 신설하기 위해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구암 31일 밝혔다.

지방청별로 5~6명의 수사관으로 짜여질 계좌추적 지원팀은 지방청 광역수사대나 일선 경찰서 등이 복잡한 뇌물사건이나 금융범죄를 수사할 때

노하우를 제공하고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분청 수사국에 7명으로 구성된 지능범죄수사지원팀을 만들어 지방청 계좌추적 지원팀 신설 준비 작업과 경찰청 특수수사의 수사업무 지원을 맡도록 했다. 경찰청은 또 내년부터 경찰대학 산하 수사보안연구소의 수사관 교육 과정에 '회계장부 수사'를 4주짜리 전문 과정으로 독립시켜 운영키로 했다.

경찰청은 금융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법인 출신 금융전문가를 계약직으로 특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연남스

화순 주택 화재

80대 노인 숨져

구암 31일 새벽 0시10분경 화순군 북면 수리 고모(여·81)씨의 집에서 불이 나 고씨가 숨졌다.

불은 12평 남짓된 슬라브 주택을

모두 태운 뒤 30여 분 만에 진화했으나 자고 있던 고씨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변을 당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고씨가 부엌에서 사골국을 끓이던 중 가스레인지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나원참 (7016) 김장동



평소순도저의 중점특강을 누리는 3.636 최대관객! **수원산도시 피오레** 062-367-9000

대리운전 기사 지갑 훔쳐

광주 북부경찰은 구암 31일 대리운전 자동차 안에 있던 지갑을 훔친 운모(29)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정의와 자유의 '나팔' 불렀습니다"

정해년(丁亥年) 새 아침을 맞아 '나팔쇠'가 삼가 새해 인사드리며, 올 한해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 구성구석을 찾아다니며 독자들의 눈과 귀가 됐던 '나팔쇠'는 새해에도 세상 어두운 곳에 빛이 되고 약하고 소외받는 이웃들의 벗이 되며, 이 땅에 정의와 자유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힘찬 '생나팔'을 불렀습니다.

모쪼록 밝고 희망찬 소식과 사랑과 감동이 넘치는 이웃들의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생나팔'이 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중국어를 할 줄 아는 당신! 당신이 부럽습니까? 그럼 지금 시작하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초반에서 고급까지
모든 강의가
1월 3일
새로 시작합니다.
1월 3일입니다.

중국학원
www.chineseschool.or.kr

토익 만점 기록 11회 대행진!

최신출판 550시간 영어학원 **조성문** 교수 친필 추천

이제부터 TOEIC 만점기록 향유에 도전합니다.
TOEIC 800점 만점 기록 이젠 여러분 차례입니다!

목표점수까지 무한반복수강!

990점 만점반
660점 목표반

800점 목표반
초등중학생반

평화교육대학에서 30년 만에 신관으로 심소를 미쓰사했습니다!

(예술의 거리) 중앙초등학교 후문 사거리 입구 ☎(051)222-0253

동아외국어학원